

'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 2024년 5대 유망소비재 수출액(427억불)

- 한류박람회 개최, 팝업스토어 설치 등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 지원
- '소비재 인증전담팀'(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K-소비재 물류데스크' 신설
-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역직구 대행 서비스 지원 등 역직구 활성화 추진
- 유통망-소비재 기업 동반진출을 통한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 육성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적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한류 연계 마케팅 강화 】

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가칭 UAE K-City)와 국내(코엑스)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사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

【 소비재 특화 유통·물류 】

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5개국)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 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25년 302개→’26년 322개)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해외인증·지재권 등 수출애로 해소 】

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 】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26~’28)’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1,000개社)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년 5대 유망소비재 수출액(427억불)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4020)
		담당자	서기관	김윤희 (044-203-4021)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서두원 (044-203-4024)
<협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서기관	김현동 (044-203-403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이선녕 (044-203-404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책임자	과 장	김태희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8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송승희 (044-203-5626)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3-870-5520)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숙진 (044-203-3311)
		담당자	서기관	고영진 (044-203-331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임강섭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044-202-2969)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경훈 (042-481-1500)	
	담당자	서기관	류정현 (042-481-5033)	